

아목시실린 생산중단 속출

95년 생산액 2.9% 감소 ... 원료수급난 · 채산성 악화 따라

아목시실린 생산기업들이 원료 수급난과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은 95년 생산을 포기했으며, 일동제약, 중외제약 등도 최근들어 생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국내 아목시실린 생산액은 95년 365억2900만원으로 94년 376억1100만원에 비해 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아목시실린 생산현황			
(단위 : 100만원)			
구 분	1994 금 액	1995 금 액	증감률
우 평	20 751	25 372	22.3%
대웅화학	7 405	8 331	12.5
일동제약	2 678	1 434	▽46.5
중외화학	-	815	100.0
동화약품	1 614	502	▽68.9
동아제약	253	-	▽100.0
유한양행	1 900	-	▽100.0
중외제약	3 010	75	▽97.5
합 계	37 611	36 529	▽2.9

동아제약은 94년 2억5300만원, 유한양행은 19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으나 95년들어 생산을 포기했다.

일동제약과 중외제약도 94년 26억7800만원과 30억1000만원에서 95년은 14억3400만원과 7500만원으로 생산이 각각 46.5%와 97.5% 감소했다.

중외제약에 아목시실린을 공급하고 있는 중외화학이 95년 생산을 시작, 8억1500만원 생산실적을 기록해 유일하게 증가했으나 중외제약의 94년 생산액과 비교하면 2.1% 증가에 불과한 실적이다.

이같은 전반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95년 생산실적이 2.9% 감소에 그친 것은 우평과 대웅화학의 생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평은 95년 253억7200만원을 생산해 94년 207억5100만원에 비해 22.3% 증가했으며, 대웅은 83억3100만원으로 94년 74억500만원에 비해 12.5% 증가했다.

이는 우평과 대웅화학이 아목시실린의 원료인 6-APA

(6-Amino Penicillanic Acid)를 자체생산, 원료수급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여타기업들은 6-APA 가격이 94년 Kg당 70달러에서 95년 85달러로 급등해 채산성이 맞지 않고, 6-APA의 원료가 되는 페니실린 공급마저 불안정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6년 아목시실린 가격은 원료가 인하를 반영해 Kg당 6만3000원으로 95년 6만5000원에 비해 3.0% 하락했다.

6-APA 가격하락은 원료인 페니실린 가격이 95년 Kg당 23달러에서 96년에는 20달러로 13.0% 인하된데 따른 것이다.

아목시실린은 94년 4만3172Kg(Kg당 6만원) 323만1643달러를 수출했으며, 95년에는 124.4% 늘어난 9만7823Kg, 725만3849달러를 수출했고 가격은 1.7% 하락한 Kg당 5만9000원에 판매됐다.

수출 호조는 아목시실린 가격이 저렴해 동남아 · 동유럽 등의 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목시실린 수입은 인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서 Kg당 6만원 이하의 저가품이 국내시장에 일부 유입되고 있다.

아목시실린은 페니실린계 항생제 중 암피실린과 함께 가장 범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항생제로 가격이 싸고, 부작용이 적으며,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오래된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생산이 대량으로 줄지는 않을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6/10/7>